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11. 1 Fri. 19:30 - 2 Sat. 15:00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11. 1 Fri. 19:30 - 2 Sat. 15:00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11. 1 Fri. 19:30 - 2 Sat. 15:00

대구오페라하우스 초청 / 광주시립오페라단 제작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11. 1(금) 7:30pm - 2(토) 3pm

대구오페라하우스

La Traviata

G. Verdi 라 트라비아타

개요

작곡 주세페 베르디, 1813-1901

대본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

원작 알렉상드르 뒤마 피스의 소설 《동백꽃 여인》

배경 16세기 이탈리아 만토바

초연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 페니체 극장

형식 3막

언어 이탈리아어(한글/영문자막 제공)

주요 제작진

예술감독 최 철

지휘 송안훈

연출 이경재

합창지휘 이 준

안무 박경숙

부지휘 이현민

출연진

비올레타 Sop. 박수연, 김희정

알프레도 Ten. 이재식, 강동명

제르몽 Bar. 조재경, 공병우

플로라 M.Sop. 서미선

가스통 Ten. 김진우

듀폴 Bar. 김희열

도비닉 Bass 나규보

그랑빌 Bass 김일동

안니나 M.Sop. 황지혜

주세페 Ten. 이요한

메신저 Bass 윤찬성

디오오케스트라

광주시립합창단

광주시립발레단

노이어앙상블

INFORMATION

Composer Giuseppe Verdi

Librettist Francesco Maria Piave

Original Alexander Dumas fils 《La dame aux camélias》

Setting Paris in the 18th or 19th century

Premiere March 6, 1853, Teatro Fenice, Venice

Form 3 acts

Language Italian(Korean/English Supertitle)

CREATIVE TEAM

Artistic Director Choi Cheul

Conductor Song Anhoon

Director Lee Kyungjae

Chorus Master Lee Jun

Choreography Park Kyungsook

Assistant Conductor Lee Hyuenmin

CAST

Violetta Sop. Park Sooyeon, Kim Heejung

Alfredo Ten. Lee Jaesig, Kang Dongmyung

Germont Bar. Jo Jaegyeong, Paul Kong

Flora M.Sop. Seo Miseon

Gastone Ten. Kim Jinwoo

Baron Douphol Bar. Kim Huiyeol

Marquis d'Ohigny Bass Na Kyubo

Dr. Grenvil Bass Kim Ildong

Annina M.Sop. Hwang Jihye

Giuseppe Ten. Lee Yohan

Messenger Bass Yoon Chansung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Gwangju City Choir

Gwangju City Ballet

Neuer ensemble Choir

Contents

목차

Greetings	04	인사말
Gwangju Metropolitan Opoera	07	광주시립오페라단 소개
Composer	08	작곡가 소개
Synopsis	09	줄거리 소개
Director's Note	10	연출의 글
Exposition of La Traviata	11	작품 소개
Scenic Design	16	무대디자인
Costume Design	18	의상디자인
Creative Team	20	주요제작진
Cast	22	출연진 및 출연단체
Production Staff	31	제작진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동맹’의 결실! 마지막 메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뜨거운 성원 속에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관객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에 힘입어 어느덧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메인 오페라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작하고,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초청한 주세페 베르디의 <라 트라비아타>입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동맹’의 일환으로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와 오페라 가치 확산에 힘을 보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통해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삶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작품입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작한 고품격 프로덕션으로 마지막 메인 오페라를 선보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구 공연을 위해 힘써주신 광주시립오페라단 최철 단장님을 비롯한 광주시립오페라단 직원 여러분과 뛰어난 역량의 출연 제작진, 송안훈 지휘자님과 연출가 이경재님 등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오페라를 사랑하고, 즐기는 마음이 하나 되어 이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관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나아갈 대구오페라하우스의 밝은 미래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유일의 오페라 제작극장으로서 완성도 높은 다양한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주예술의전당장 윤영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의 자랑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를 ‘유네스코 음악창의 도시’인 대구에 선보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공연장을 찾아주신 오페라 애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초청작으로 오페라하우스에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정갑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번 공연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와 대구는 지난 2013년 영호남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한 ‘달빛동맹’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달빛동맹’의 중심에는 두 도시를 잇는 대형 공연예술 프로젝트인 오페라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대구 공연은 영호남 예술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과 폭넓은 문화 향유 기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라 트라비아타>가 문화 매개의 역할을 넘어 광주와 대구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공연장을 찾아주신 대구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가 대구시민 여러분께 감동이 넘쳐흐르는 행복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에서 만나는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최철



문학에서 비극적 결말을 품은 작품 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단골 레퍼토리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랑의 원인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신분차이나 정략적 희생으로 인한 아픔, 빈곤, 그리고 사회의 이중적 윤리관 등이 이유가 됩니다. <라 트라비아타>를 작곡한 오페라의 왕 베르디는 사교계의 매력적인 여인, 실존인물인 마리 뒤플레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통렬하게 프랑스 사회를 비판한 소설 '동백꽃 여인'을 접하고 자신이 찾던 '진실'에 대한 갈망을 풀어줄 세련된 주제로 크게 공감합니다. 사회안에 자리 잡은 이기적통념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그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사회적반향과 더불어 자신의 모든 오페라 중 가장 사랑받는 대표작이 됩니다.

<라 트라비아타>는 주옥같은 음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곁들여진 무희의 멋진 춤과 18세기 프랑스 사교계의 풍경안에서 관객은 어느새 멋진 파티에 참석한 일원이 됩니다. 또한 사회가 가지는 편견에 희생되었던 비올레타, 그녀를 통해 사회가 지는 인간을 향한 가식 된 잣대의 결말을 베르디는 비판적 시각으로 예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당대의 풍경과 철학, 그리고 시대정신을 담은 오페라의 감동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이 예술안에 담긴 작은 혁명의 주역이 되길 원한다면, 잘 오셨습니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대구'에서 여러분은 음악을 통해 이미 세상을 바꾸어가려는 예술의 동조자이자 예술혁명가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번 무대를 위해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만드신 정갑균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찾으신 여러분! 행복의 감로수가 흐르는 감동의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최철

광주다운 오페라, 광주의 문화 예술을 세계로 펼쳐 나가는 광주시립오페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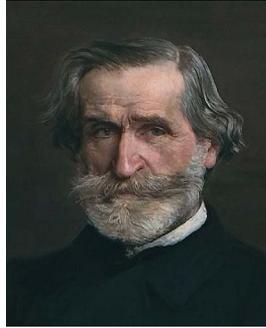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광역시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충족을 위해 2017년 9월 1일 창단되었습니다. 광주시민을 위한 광주시립오페라단은 시민이 예술의 주체가 되고, 역량 있는 음악 인재와 예술가, 공연 전문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은 폭넓은 오페라 장르로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한국 오페라의 저변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물론 서울, 대구, 순천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사업 및 교류 공연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연계 교육프로그램' 등 크고 작은 공익사업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을 찾아가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시립오페라단은 광주가 가진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널리 알리기 위한 '광주다운' 오페라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주세페 베르디 1813-1901

Giuseppe Verdi



이탈리아 파르마의 레론콜레에서 1813년 10월 10일 태어난 주세페 베르디 Giuseppe Verdi(1813-1901)는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미를 장식한 작곡가이다.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곡가로서 로시니의 뒤를 이어 이탈리아 오페라의 전통을 확립하고, 훗날 푸치니에게 그것을 계승하였다. 어린 시절 베르디는 음악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834년 자신의 후원자이자 후일에 장인어른이 되는 안토니오 바레치 덕분에 음악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된다. 1836년 베르디는 후원자의 딸 마르게리타 바레치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3월 딸 비르지니아가, 그다음 해 7월 아들 이치리오가 태어났지만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 마르게리타까지 차례로 세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된다. 2년 만에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당시 작업하고 있던 오페라 <하루만의 임금님>의 초연마저 실패하자 베르디는 작곡에 대한 열망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암울한 절망의 시기에 그를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 준 사람은 라 스칼라극장의 감독이자 그에게 첫 계약을 성사시켜 준 바르톨로메오 메렐리였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와 꾸준한 부추김 덕에 베르디는 그의 명성을 이탈리아 밖까지 날리게 한 첫 오페라 <나부코>(1842)를 완성할 수 있었다. 특히 4막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오스트리아의 압제 아래 있던 이탈리아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여 압도적인 감동을 이끌었다. 또한 베르디는 <나부코>의 초연에서 주역을 맡았던 가수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새로운 사랑에 빠졌으며, 그녀의 헌신적인 외조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황금기를 열 수 있었다.

베르디의 작품은 성악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벨칸토 오페라의 전통을 기반으로 화려한 기교의 아리아와 남성미 넘치는 합창 등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가 발표한 작품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작품 속 중심에 ‘휴머니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짧은 시간에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어야 했던 개인적인 삶의 아픔에 기인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감정에 관심 가지고 야망, 탐욕, 시기, 사랑, 질투, 충성 등 인간 심리를 음악으로 승화시켰다. 주로 통속적인 사랑이야기를 다루어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세속적 사랑의 갈등 등 누구나 삶의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였기에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감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오페라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거장으로 우뚝 선 베르디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동시에 가장 높은 명성을 누리며 일생을 보냈다. <오베르토>, <나부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돈 카를로>, <아이다>, <오텔로>, <팔스타프> 등 수많은 명작을 남긴 그는 1901년 1월 27일 호텔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87세로 생을 마쳤다. 그의 장례식이 있던 날, 밀라노 거리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20만 명의 대군중들이 함께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1막

파리 사교계의 꽃, 비올레타 발레리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있다. 비올레타의 친구 가스통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비올레타를 흠모해온 청년 알프레도 제르몽을 소개한다. 알프레도는 그녀가 아플 때마다 매일같이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비올레타의 연인인 듀폴 남작은 이 대화에 불만을 품고 가스통의 건배 제안을 거절한다. 이에 알프레도가 대신 건배를 받아들이며 아름다움과 사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파티가 끝난 후, 비올레타는 기절할 뻔하지만, 알프레도가 그녀 곁에 남아 1년 동안 그녀를 사랑해왔음을 고백한다. 비올레타는 그의 사랑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시든 꽃을 주고, 시든 후에 돌아오라고 말한다. 알프레도는 기쁘게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작별한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사랑을 상상하며 고민하지만 결국 자유롭게 살 것을 결심한다.

2막 1장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와 함께 시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의 재산이 팔려 그들의 생활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에 급히 파리로 돌아가 돈을 마련하려 한다. 그사이 알프레도의 아버지인 조르시오 제르몽이 비올레타를 찾아와 두 사람의 관계가 자신의 딸의 결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비올레타에게 알프레도를 떠나달라고 요청한다. 비올레타는 자신의 아픈 상황을 설명하지만, 결국 알프레도의 미래를 위해 그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작별 편지를 남긴다.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한다.

2막 2장

비올레타의 친구 플로라는 파티를 연다. 알프레도는 파티에 도착해 비올레타와 듀폴 남작을 만난다. 알프레도는 도박에서 연속으로 이기며 “사랑에서 불행한 자는 도박에서 행운을 잡는다”고 말한다. 남작은 알프레도의 도전적인 태도에 화를 내며 결투를 신청한다. 알프레도는 비올레타에게 함께 떠나자고 하지만, 비올레타는 자신이 남작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질투에 휩싸인 알프레도는 손님들 앞에서 비올레타에게 돈을 던지며 자신이 그녀에게 모든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한다. 이를 목격한 조르시오 제르몽은 알프레도의 행동을 꾸짖고, 알프레도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

3막

비올레타는 병으로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그랑빌 의사는 비올레타에게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한다. 제르몽은 알프레도가 남작과의 결투에서 상처를 입었으나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제 알프레도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러 돌아오고 있다고 말한다. 알프레도가 도착해 두 사람은 재회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비올레타는 알프레도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다.

연출의 글

Director's Note

오페라 연출가 이경재

광주시립오페라단이 마련하는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페라이자 광주 시립오페라단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번 <라 트라비아타>는 ‘처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1800년대 실존 인물 ‘마리 뒤플레시’의 이야기를 작가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원작<동백꽃 여인>은 요즘 말로 TV 프로그램 ‘인간극장’과 같은 논픽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이 마리 뒤플레시가 되고 나레이터가 알렉산드르가 되는 셈입니다.

한 여인의 짧은 삶을 그리는 이 희곡 작품은 남성의 어조로 읽히지만, 베르디의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라 트라비아타>는 온전히 ‘마리 뒤플레시’에서 ‘비올레타’로 이름이 바뀌어, 한 여인의 갈등과 고민 선택을 통해 인물의 안타까운 결말까지 보여줍니다.

소설 원작의 심리묘사를 오페라로 최대한 적용시키며,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베르디의 감수성이 돋보일 수 있는 무대를 이곳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드라마의 이야기가 설득력 있는 음악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네 장면의 무대는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단순하게 힘을 뺐습니다.

화류계 여성으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과 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여주인공의 배경은 단순한 흰 계열의 색감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채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닌 주인공은, 언뜻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살기 위해 팔아야 하는 미소와 품위가 아무 의미없는 흰 배경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1막, 2막 2장, 3막의 장면을 통하여 여주인공 비올레타는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2막 1장은 자신이 살고 싶은 삶에 도전하는 장면입니다. 파티와 비올레타의 마지막 장면은 가능한 단순한 무대로, 색깔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비올레타가 진정 원했던 삶의 시도가 전개되는 2막 1장은 보다 자연스러운 색채로 그녀의 심정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는 ‘처음’에 의거하여 고전적으로 전개합니다.

원작의 분위기를 제안하는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으로 당대를 묘사하지만, 무엇보다 시대를 초월하는 감수성은 지금을 사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전합니다. 한 여인의 짧은 시기를, 베르디의 역동적인 음악과 함께 드라마가 살아서 작품 원작의 아련함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동아일보 문화전문기자 유윤종

“나는 변화가 많은, 새롭고 대담한 소재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일어날 만한 이 시대의 현대극입니다. 다른 작곡가들은 관습이나 반대 때문에 이런 극을 주저하겠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설리며 이 작품을 씁니다.” (1853년 1월, 베르디가 친구 체자레 데 산크티스에게 쓴 편지)

1853년, 40세가 된 베르디는 음악적 역량과 사회적 명성의 정점에 있었다. <나부코>, <제1차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 같은 애국적 작품이 성공을 거두면서 그는 이탈리아 통일을 향한 움직임의 아이콘이 되었다. 1851년 베네치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된 <리골레토>는 이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알렸으며 전 유럽과 미국, 남미에서도 공연되었다. 얼마간은 의고적인 기법으로 쓰인 <일 트로바토레>의 1853년 1월 로마 아폴로 극장 초연도 대성공이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그는 “돌아보면 내게는 잠시도 휴식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이른바 ‘고역의 시기’의 한가운데였지만 베르디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자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리골레토>가 초연된 1851년 말, 베르디는 자신의 파트너인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함께 파리를 여행하면서 연극 ‘동백꽃 여인’ (La Dame aux camélias)을 관람했다. 바로 얼마 전 알렉산드르 뒤마 피스(‘아들’ 알렉산드르 뒤마라는 뜻, 아버지 알렉산드르 뒤마는 ‘삼총사’ ‘몽테 크리스트 백작’의 작가)가 쓴 원작소설을 읽어 아는 소재였다. 베르디는 이 연극을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할 다음 오페라의 소재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식적으로 베르디는 ‘홀아비’였다. 성장기부터 고향 부세토에서 그를 후원한 상인 바레치의 딸 마르게리타와 결혼했지만 4년 만에 두 갓난 아들과 아내를 모두 병으로 잃었다. 두 번째 오페라마저 실패해 실의에 빠진 그를 구원한 작품이 세 번째 오페라 <나부코>였으며 이 작품의 초연 무대에서 주역 소프라노인 아비가엘레 역을 맡은 사람이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였다. 공연이 대성공을 거둔 뒤 이들은 함께 살게 됐지만 고향 부세토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손가락질했다.

이유가 없지는 않았다. 스트레포니는 유명 오페라 흥행사인 라나리를 비롯해 이 업계 인물 여러 사람과 함께 지낸 전력이 있었으며 라나리의 아이 셋을 포함한 사생아들을 낳았다. 베르디의 고향 사람들에게 그녀는 ‘성공을 위해 남자를 꾀는 여자’로 보였다. 하지만

베르디와 스트레포니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사랑했다. 스트레포니는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와 <시몬 보카네그라> 원작을 번역하는 등 충실한 조력자이자 조연자이기도 했다.

“나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내 집에는 자유롭게 독립적인 여성이 살고 있으며 그는 나처럼 외딴 삶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까?” (베르디)

오히려 결혼을 꺼린 쪽은 스트레포니였다. “나는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당신이 주는 사랑은 내게 선물이며, 겉보기에 행복해 보이는 내 마음을 달래는 약입니다. 죽은 뒤 당신의 사랑과 기도로 가득찬 신의 정의 앞에 내가 설 때, 나를 계속 사랑해주세요, 나의 구원자여.” (스트레포니)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것은 <라 트라비아타> 초연 6년 뒤인 1859년의 일이었다.

스트레포니와 함께 연극 ‘동백꽃 여인’을 본 베르디가 극의 주인공인 마르그리트에게 공감한 것은 자연스러웠다. 마르그리트는 이 극의 원작자인 뒤마가 실제 사랑했던 파리 유흥계의 여왕 마리 뒤플레시가 모델이었다. 프랑스 북부의 빈궁한 가정에서 ‘알퐁 신 로즈 플레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뒤플레시는 10대 초반부터 주정뱅이 아버지의 강요로 매춘에 뛰어들었다. 이후 그는 어린 나이에 파리로 가서 재봉사로 취업했다. 당시 파리에는 시골에서 상경한 수많은 어린 여공들이 있었다. 이 소녀들은 ‘그리제트’라고 불렸다. 그들이 입은 값싼 화색 옷에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알퐁신 로즈 플레시의 아름다운 자태는 훨씬 수입이 많은 일로 그를 이끌었다. 사교계에 몸을 들여 ‘고급 창부’가 된 그는 실제의 이름에 귀족을 암시하는 ‘뒤’를 덧붙였다.

‘마담 뒤플레시’가 된 이 어린 여인은 파리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출입하는 살롱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대략 한달 중 25일은 흰색, 5일은 붉은색 동백 장식을 옷에 달았다. 귀족과 부유한 상인, 피아니스트 프란츠 리스트를 비롯한 예술가들이 그를 사랑하거나 그와 관계를 가졌고 아들 알렉상드르 뒤마는 원작의 남주인공 아르망(오페라에서 알프레도)의 실제 모델이었다. 뒤플레시의 삶은 23세에 폐결핵으로 막을 내렸다. 연극과 오페라에서 여주인공은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맛보지만 사회의 인습에 가로막혀 절망한 끝에 폐결핵으로 삶을 마친다. 1800년대 유럽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약 4분의 1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뒤플레시의 죽음은 당시의 매스컴에도 센세이션이었다. 당시 파리에 있던 영국 문인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썼다. “며칠 동안 모든 정치적이거나 상업적 문제는 신문에서 무시됐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 즉 데미몽드(반세기)의 영광중 하나이자 아름답고 유명한 마리 뒤플레시의 죽음 앞에 다른 모든 일들은 지워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약간 기이하게 여겨지지만 당시 유럽에서 결핵은 얼마간 ‘낭만적인’ 질병으로 여겨졌다. ‘흑사병’과 대비되어 ‘백사병(White death)’로 일컬어진 이 질병에는 순수함의 아우라가 있었다. 시인 바이런은 ‘나는 결핵으로 죽고 싶다’고 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죽기 직전 갑자기 기운이 솟구치면서 희망과 행복감을 맛보게 된다는 점에서도 이 병은 낭만적이었다. <라 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 이후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의 안토니아,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의 미미도 이 병으로 죽어가며, 죽기 바로 직전에 희망의 불꽃을 표현한다.

디킨스가 언급한 ‘반세기’란 무엇일까? 그것은 존중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들과 사회적 기득권자인 남자들이 공존하는 호사스럽고

어두운 세계였다. 데미몽드의 여인들은 연인들이 준 선물과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지만 그것은 외부 사회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세계였다. 그것은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서 제르몽이 언급하는 ‘순결한 딸’과 뚜렷이 대비되는, 호화롭지만 어두운 세계이기도 했다. 기득권층은 그 세계를 동경과 혐오라는 이중적 잣대로 대했다. 욕망의 대상으로서는 숭앙했지만 자신의 개인적 영역에 연결되는 것은 절대 피했다. 오페라에서 제르몽은 ‘천사처럼 순수하지 않은’ 비올레타에게 ‘우리 가족에게 위로의 천사가 되어 달라’고 주문한다.

베르디가 이 소재를 오페라로 만들기로 마음먹은 것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원작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있던 시기였다. 아들 뒤마가 소설 ‘동백꽃 여인’을 발표한 것은 베르디와 스트레포니가 연극을 보기 불과 3년 전인 1848년이었다.

소설과 연극 ‘동백꽃 여인’을 오페라로 만든 <라 트라비아타>의 제목은 ‘길을 잃은 여인’이라는 뜻이다. 3막 아리아 ‘안녕, 내 지난 간 길이어’에서 주인공 비올레타는 ‘아 신이여, 이 길을 잃은 여인에게 미소를 보내 주십시오’라고 노래한다. 현실적인 생존과 처음 알게 된 사랑, 사회의 장벽과 자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여인을 이 제목은 보여준다.

베르디가 새 오페라를 베네치아의 라 페니체 극장에서 초연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2년 전 이 극장에서 초연된 ‘리골레토’의 성공에 힘입은 바 컸다. 라 페니체는 베네치아 문화의 영원함을 상징했다. 이탈리아어 ‘페니체’는 불사조(Phoenix)를 뜻한다.

1792년 문을 연 뒤 1836년의 전소화재를 딛고 불사조처럼 살아난 이 극장은 로시니의 <탄크레디>, <세미라미데>, 벨리니 <카롤레티와 몬테키> 등 수많은 오페라 역사의 걸작들이 초연된 터전이었다. 베르디도 일찌기 <에르나니>와 <아틸라>를 이곳에서 초연했으며 특히 여기서 초연된 <리골레토>의 대성공은 또 한번의 기대를 걸게 만들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일어날 만한 이 시대의 현대극’을 원했던 베르디의 소망은 바로 난관에 직면했다. 라 페니체 극장 측이 ‘의상과 무대를 루이 14세 시대인 1700년 경의 파리로 바꾸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스트레포니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현재형으로 체험했던 베르디로서는 주인공들의 아픔을 자기 시대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고, 당연히 당시의 ‘현대’인 1850년대 무대와 의상을 인물들에게 입히고 싶었다.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베네치아의 검열 당국마저 베르디가 원한 오페라의 개요에 대해 별다른 토를 달지 않은 터였다. 실제 극장 측이 두려워한 것은 체제의 검열보다 당대 사회의 인식이었다. 한 세대 후인 1880년대에 ‘베리스모’ 즉 ‘사실주의’ 오페라의 바람이 불어 닦친 점을 상기하면 놀라운 일이지만, 1850년대만 해도 도덕이나 윤리를 떠나 ‘이 시대의 현실’을 오페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낯선 개념이었다. 이에 비해 수백 년 전의 사회를 묘사하고 그 도덕관념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였다.

베르디는 결국 양보해야 했다. 이 작품이 1850년대의 복장과 무대에 따라 공연된 것은 1906년에 이르러서였지만, 이미 작품 실제 배경으로부터는 반세기나 지나 있었다.

초연 무대의 준비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1853년 2월, 리허설을 위해 베네치아에 도착한 베르디는 뭔가 일이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주인공 비올레타를 맡은 파니 살비니도나텔리는 당대의 유명한 소프라노였지만 38세로서 당시 기준으로는 나이가 많았던데다 몸집이 큰 편이어서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주인공으로는 적당하지 않았다. 베르디는 앞서 더 젊고 날씬한 여성을 기용해야 한다고 라 페니체의 경영진을 설득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터였다.

첫 공연은 순조롭게 시작됐다. 여주인공이 '상대적으로 덜 쇠약한' 1막 마지막 장면 '언제나 자유롭게(Sempre libera)'가 끝나자 갈채가 터졌다. 2막에서 제르몽이 비올레타를 설득하고 비올레타가 절절히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는 장면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2막 2장이 지나면서 갈채는 줄어들었고, 마지막 3막에서는 한 관객이 "결핵이 아니라 부종이 온 거냐?"고 외쳤다.

몇몇 '도시전설'이 주장하는 만큼의 실패는 아니었다. 두 번째 공연부터 관객은 한층 호의적이었고 최소한 재정적으로 프로덕션은 손해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베르디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이 오페라에 대한 마지막 말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막과 3막에 일부 수정을 가했고 새 버전은 5월 라 페니체 극장 건립 이전부터 있던 베네치아의 산 베네데토 극장에서 공연돼 성공을 거뒀다.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도 독특한 컬러를 지닌 이 작품을 세계 오페라 흥행 정상에 올려놓은 매력은 무엇일까?

파트너인 스트레포니에 대한 베르디의 공감이 감동적인 선율들로 형상화된 점을 가장 먼저 꼽을 수밖에 없다. 줄거리는 복잡하다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이 즉각적으로 이해된다. 합창단과 적당한 숫자의 단역들이 필요하지만 꽤 작은 극장에서 공연하기에도 무리는 없는 규모다. 음악학자들은 이 작품이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배경이 실내로 설정된 오페라'라는 점에 놀라움을 표시한다.

무엇보다 '내가 사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고자 한 베르디의 의욕은 그의 시대를 넘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오페라에는 권력자도, 전쟁도, 마녀도 없다. 이전 베르디가 표현한 왕과 전쟁과 마녀들도 훌륭하게 형상화됐지만, 현실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가 완성한 이 '우리 시대의 현대극'은 바로 곁에서 사랑을 느끼고 절망하고 불꽃이 꺼져가는 듯한 주인공을 손에 잡히듯 그려냈다. 그것은 스타일에 있어서 이탈리아 오페라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 이 작품은 당대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그 시대의 관습과 시각, 문제점을 다뤘으며 부르주아의 도덕관에 직접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주인공에 대한 베르디의 공감은 이 작품 곳곳에 가슴 시큰한 음악적 표현들을 마련했다. 2막에서 비올레타가 알프레도의 시선을 피하며 폭발시키는 사랑의 호소나, 3막 아리아 '안녕, 내 지나간 길이어'에서 들리는 오보에의 애상적인 멜로디는 그 일부이다. 비올레타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1막 전주곡과 비극성을 강조하는 3막 전주곡의 대비도 관객을 몰입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오늘날에는 놀랍게 들리는 일이지만, 이 오페라 특히 1막과 2막 2장에 담긴 왈츠와 폴카는 당시로서는 대담할 정도로 현대적이었고 심지어 '도덕적 타락을 반영한다'는 평이 나왔다. 오늘날 축하의 장면에서 자주 쓰이는 '축배의 노래'도 왈츠 리듬에 실리는데 가사인 'Libiamo'는 '술에 취하자'라는 뜻이다. 1막에서 비올레타가 새롭게 다가온 사랑을 의심하는 '아 그이었던가(Ah, forse lui)'도,

그가 삶의 마지막을 예감하는 아리아 '안녕, 지나간 길이어(Addio, del passato)'도 실제로는 왈츠를 연상시키는 4분의 3박자 리듬에 실려 노래된다. 3박자는 비올레타 캐릭터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초연 무대가 적절한 소프라노를 선택하는데 실패했던 데서 나타나듯, 여주인공인 비올레타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절대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1막에서 비올레타는 최고 수준의 난도를 요구하는 콜로라투라(목관악기의 연주법을 흉내 낸 빠르고 화려한 기교)를 소화해야 하지만 이런 기교상의 요구는 1막에서 끝난다. 대신 2막에서는 절박한 호소력을 극대화해야 하며 마지막 3막에서는 목숨이 꺼져가는 병약한 여인을 표현해야 한다. 비올레타에게 필요한 성악적 특징은, 3막을 양보하더라도 '뚜렛이 다른 세 개의 오페라' 만큼이나 다양한 것이다.

이 오페라의 사건적 중심은 두 사람이 만나는 1막과 비올레타가 죽어가는 3막이지만, 감정적인 중심은 오히려 2막에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올레타의 순정과 제르몽의 보수적인 세계관이 충돌하는 장면이며, 비올레타의 순수한 감정이 완고한 제르몽마저도 일부 감화시키는 장면이다. 제르몽은 비올레타가 가진 사랑의 깊이를 실감하며 죄책감과 감사를 느낀다. 이 장면은 레치타티보와 아리오소, 중창을 망라한 복잡한 음악적 구조와 극적인 감정선을 요구한다.

베르디가 요구한 이 작품의 '현재성'은 오늘날에도 그 의미를 계속해서 증명한다. 영화 '프리티 우먼'(1990)에서 에드워드의 제안(리처드 기어)으로 이 오페라를 관람한 비비안(줄리아 로버츠)이 주인공에 동화되어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장면이 그 한 예다. 개인적 사랑과 완고한 사회적 인습 사이에서 작곡가 자신이 직접 겪은 갈등을 유려한 선율과 다양한 극적 장치로 표현한 <라 트라비아타>는, 이제 시대를 넘어 오늘날에도 세계의 수많은 음악 팬 뿐 아니라 미리 준비하지 않은 관객들까지도 눈물에 젖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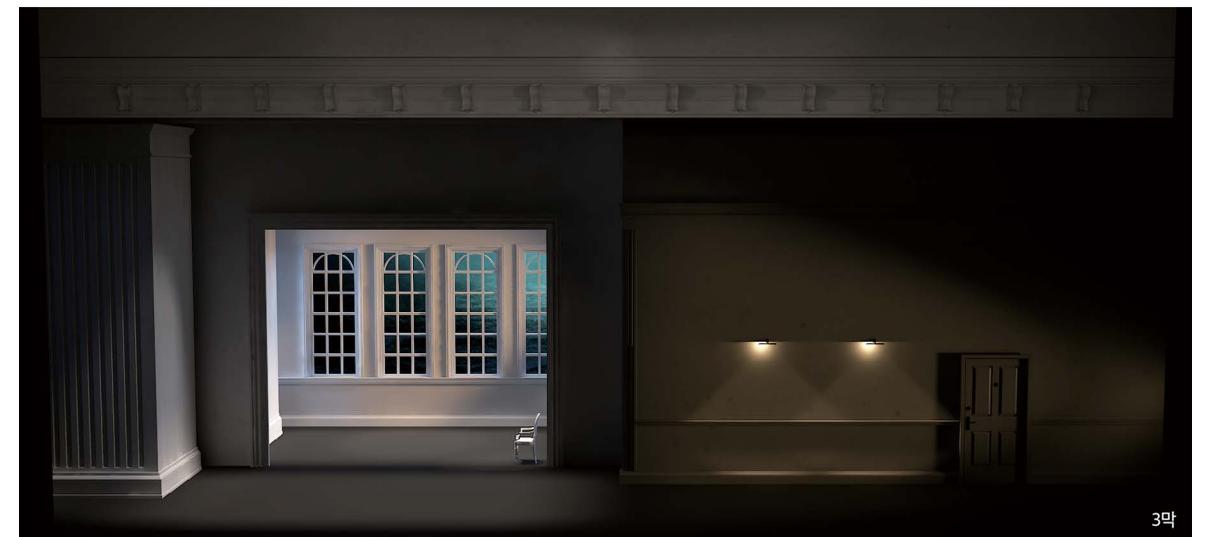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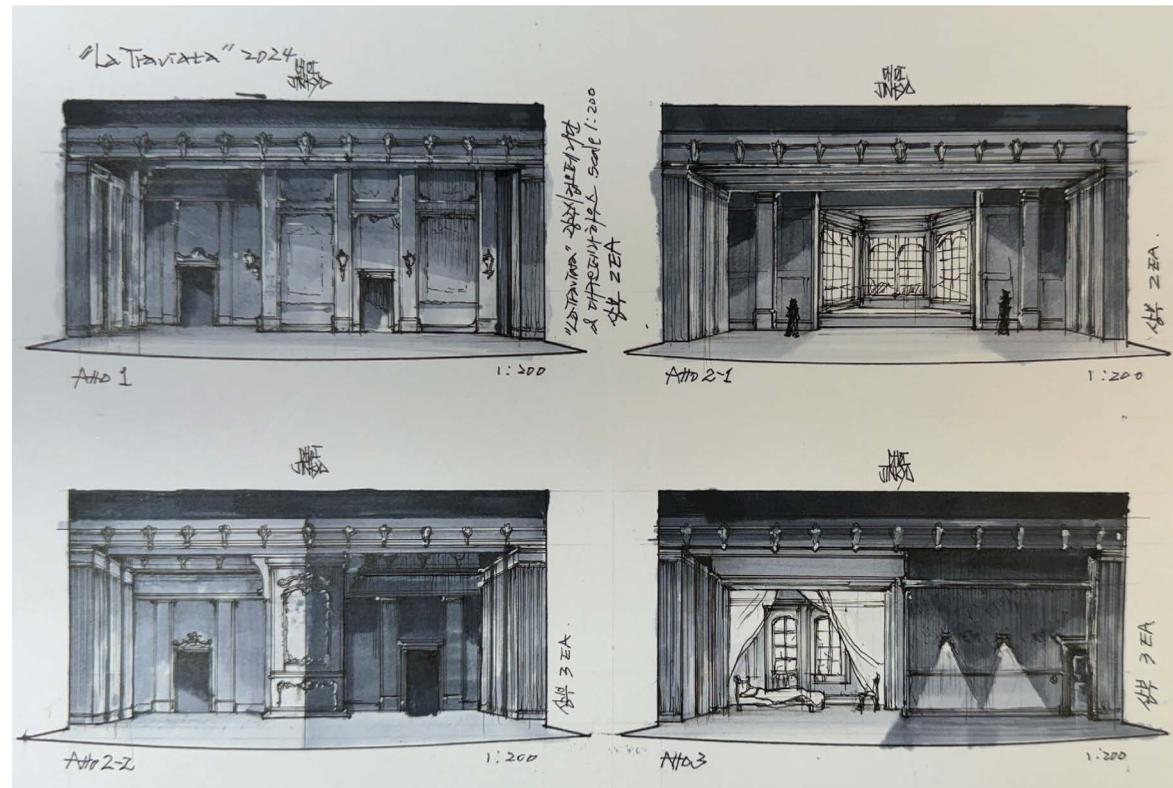
작가의 자전적 경험이 담긴 소설 '동백꽃 여인(춘희)'를 원작으로 하고 베르디의 오페라 중 가장 많이 공연되어지는 <라 트라비아타>는 무대미술가인 나에게도 가장 많은 버전으로 공연을 올렸던 작품이기도 하다.

<라 트라비아타>의 배경인 프랑스의 문학과 예술의 도시 파리는 화려함과 다채로움을 모두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축 양식으로도 고딕과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2024년 광주시립오페라단의 <라 트라비아타>는 이러한 다채로운 고전적 양식을 기본으로 삼고 현대적으로 해석한 공간으로 꾸며냈다. 무대 공간의 깊이, 좌우의 분배로 극의 심리적 뉘앙스를 형성하려 하였고 기본 공간을 무채색으로 사용하여 극중 인물의 심리 표현을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다만 극중 아리아와 독백에는 전면과 후면 영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려 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는 작품인 만큼 엄청난 부담과 속고로 만든 이번 <라 트라비아타>의 시각적 공간이 부디 이 가을 광주시립오페라단을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큰 울림과 감동을 전해드리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무대디자인 최진규





비올레타 1막



비올레타 2막 1장



비올레타 2막 2장



비올레타 3막



알프레도 1막



알프레도 2막 1장



알프레도 3막



제르몽



플로라



안나나



합창단 남



합창단 여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 **최철** Choi Cheul

- 조선대 음악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 한세대 음악학 박사(D.M.A)
- 조선대 문화학 박사(Ph.D)
- 이탈리아 마스카니(P. Mascagni)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AI. ART, A.R.A.M, AI. ART, A.M.I, A.I.D.M 아카데미 오페라 연출, 오페라 대본 연구, 합창지휘, 성악 교수법 디플로마
- 미국 브루클린 콘서바토리(Brooklyn Conservatory of Music) 수학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민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오페라 및 공연예술분야, 축제 관련 예술감독 역임
- 저서 최철의 문화살롱, 오페라 관련 연구논문을 비롯한 언론사에 다수 기획 시리즈 연재
-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 성악과 문화 관련 국내외 다수 수상
- 국내외 38회 독창회를 비롯 여러 편의 오페라 출연과 연출
- 국내외 공연예술, 문화정책 관련 다수 기관 임원 및 자문 활동
- 현)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연출 Director | **이경재** Lee Kyungjae

-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인디애나대 오페라 연출 석사
- 성균관대 공연예술대학원 박사 수료
- 2016 예술의 전당 예술대상 연출상 수상
- 서울시오페라단, 국립오페라단, 대구 오페라 하우스, 서울 예술의 전당, 대전 예술의 전당 등과 함께 <비밀결혼>, <바스티앙과 바스티엔느>,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돈파스칼레>, <사랑의 묘약>,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로미오와 줄리엣>, <라 보엠>, <잔니 스키키>, <한여름밤의 꿈>, <도요새의 강>, <노처녀와 도둑>, <아말과 동방박사>, <한울춤>,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등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오페라 작품 연출
- 전) 서울대 오페라 연구소 상임연출, 제6대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
- 현) 서울문화예술포럼 운영위원, 광주시립오페라단 운영위원



지휘 Conductor | **송안훈** Song Anhoon

-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피아노전공 졸업
-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 피아노 석사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지휘 박사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지휘 마이스터 박사졸업
- 전) 독일 게라-알텐부르트 시립극장 지휘자
독일 오이티너 여름페스티벌 상임지휘자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지휘과 강사
독일 지휘자 포럼 멤버
독일 지휘자 포럼 "미래의 거장" 선정
- 현)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극장 카펠마이스터 활동 중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지휘과 강사 활동 중



비올레타 Sop. Violetta Sop. | 김희정 Kim Heejung

- 부산대 예술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코모 베르디 국립음악원 비엔노과정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학교 보컬코치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뮤지컬과정 수료
- 이탈리아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합창지휘과정 수료
- 이탈리아 지오바니 탈렌티 페르 라 리리카 국제 콩쿠르 2위,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콩쿠르 2위, 이탈리아 줄리에타 시미오나토 국제 콩쿠르, 이탈리아 카푸칠리-파타네-레스피기 국제 콩쿠르 등 다수 입상
- 송파구청 아뜰리에 문화예술 청년예술인 선정(24)
- 이탈리아 코모 살라 무투오 소코르소 "레 보치 델 벨칸토" 초청 연주, 이탈리아 코모 소치알레 국립극장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이탈리아의 터키인> 프레젠테이션 연주, 이탈리아 바라체 뮤직 페스티벌, 이탈리아 베르가모 도니제티 페스티벌 초청 연주, 창작 음악극 <타임슬립> 주역 출연, 서초구청 정오의 클래식 디지털, 송파구청 영아티스트의 아름다운 봄 벚꽃오페라 콘서트, 송파구청 <2024 더 임팩트> 독창회 등 다양한 활동 진행 중
- 현) 오페라 전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



비올레타 Sop. Violetta Sop. | 박수연 Park Sooyeon

-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및 동대학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아카데미 수료
- 이탈리아 노바라 국립음악원 수료
- 이탈리아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 이탈리아 니콜리니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통바 1위, 심포니움 1위 및 청중상, 라보 3위 외 라투아다, 로제툼 국제 콩쿠르 입상
- 로시니 오라토리오 <작은 장엄 미사>,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독창자
- 오페라 <리골레토>,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수녀 안젤리카>, 창작 오페라 <망부운> 등 다수 주역 출연
- 전) 조선대, 전남예고, 광주예고, 광주예술영재교육원 강사
- 현) 호남신학대 및 광신대 외래교수, 성악 앙상블 Sol.La.Re 대표



알프레도 Ten. Alfredo Ten. | 강동명 Kang Dongmyung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시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비오티, 오페라 디 마르세유, 마리오 델 모나코 국제 콩쿠르 입상
- KBS 교향악단과 광주, 전주, 제주시향과 헨델 <메시아> 공연 및 협연
- 국립합창단 및 여러 시립합창단과 칼 오르프 <카르미나 부라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장엄 미사>, 헨델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 라미레즈 <미사 크리올라> 공연
- <국립오페라단을 비롯 서울시립오페라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국내 우수 오페라단과 오페라 <라 보엠>, <세빌리아의 이발사>, <세미라미데>, <살로메>, <잔니 스키키>, <박쥐>, <신데렐라>, <돈 지오반니>, <돈 파스칼레>, <코지 판 투테>, <박쥐>,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를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대구오페라하우스 외 여러극장에서 공연
- 현) 전문 연주자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



알프레도 Ten. Alfredo Ten. | 이재식 Lee Jaesig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학사 졸업
-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졸업
- 드레스덴 국립음대 오페라 마이스터 과정 졸업
- 마리아 칼라스 국제 콩쿠르 그랑프리, 비오티 국제 콩쿠르 1위, 빌헬름 스텐함머 국제 콩쿠르 1위 및 청중상, 마르세유 국제 콩쿠르 2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 3위
- 오페라 <돈 지오반니>, <마술피리>, <후궁탈출>, <사랑의 묘약>, <리타>, <마리아 스투아르다>, <안나 볼레나>, <로베르토 데베로>, <루크레치아 보르자>,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가면무도회>, <오텔로>, <팔스타프>, <도둑들>,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 <베르테르>, <박쥐>, <장미의 기사>, <캐시미어> 등 22편의 오페라에 400회 이상 주역 출연
- 다수의 독창회를 비롯해 뉴욕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와 콘서트 하우스 등 오라토리오와 갈라 콘서트 등 150회 이상 솔리스트 출연
- 현) 군산대 음악과 교수



제르몽 Bar. Germont Bar. | **공병우** Kong Paul

- 서울대 성악과 졸업
-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베르테르>, <진주조개잡이>, <라 보엠>, <돈 조반니>, <에브게니 오네긴>, <돈 카를로>, <마술피리>, <사랑의 묘약> 등 주역 출연
- 현)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제르몽 Bar. Germont Bar. | **조재경** Jo Jaegyeong

- 하노버 국립음악대학교 석사 졸업
- 하노버 국립음악대학교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독일 튀링겐 오페라 스튜디오 수료
-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장학생
- 오스트리아 린츠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3위, 스페인 비냐스 국제 콩쿠르 모차르트 특별상, 오스트리아 페루치오 탈리아비니 국제 콩쿠르 4위
- 독일 국영방송 NDR에서 후고 볼프 가곡 녹음
- 낙소스사에서 오페라 <Le due Duchesse> 음반 녹음
- 독일 바베르크성 오페라 페스티벌, 린츠 부르크너 하우스, 독일 게라 국립극장, 독일 에어푸르트 극장, 알텐베르크 극장 등 주-조역 출연
- 국립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강숙자오페라라인, 리쓰르젠테 오페라단에서 오페라 <라 보엠>, <카르멘>, <아이디>, <마술피리>, <세비아의 이발사>, <일 트로바토레>, <사랑의 묘약>, <라 체네렌톨라>, <리골레토> 등 주역 다수 출연
- 평창 국제음악제 '겨울나그네' 연주 (with 손열음)
- 현) 호남신학대 객원교수, 전남대 및 군산대 출강



플로라 M.Sop. Flora M.Sop. | **서미선** Seo Miseon

- 영남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고신 오페라 KAAD 최고연주자과정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아 디 까브리니 수료 및 로마 오케스트라 협연
- 대구가톨릭대 전국음악 콩쿠르 종교부문 전체 1위
- 광주시립오페라단, 문수오페라단, 국립극장 등에서 오페라 <신데렐라>, <마술피리>, <헨젤과 그레텔>, <공연예술 창작산실 선정작-3과 2분의 1> 외 창작 오페라 <리바운드 로맨스>, <끝나지않은 이야기>, 마르틴 팔메리 <탱고 미사>, 생상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한국 창작 가곡 협회 솔리스트 등 다수의 음악회 출연



가스통 Ten. Gastone Ten. | **김진우** Kim Jinwoo

-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졸업
- 이탈리아 아레나 아카데미 수료
- 오페라 <세비아의 이발사>, <돈 파스칼레>, <마술피리>, <리골레토> 등 주-조역 출연
- 현) 오페라 전문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



듀폴 남작 Bar. Baron Douphol Bar. | **김희열** Kim Huiyeol

- 경원대(현, 가천대)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독일 브레멘 예술대학 성악 마스터 졸업
- 오페라 <버섯피자>, <라 트라비아타>, <피가로의 결혼>, <토스카>, <라 보엠>, <마술피리>, <잔니 스키키>, <세빌리아의 이발사>, <운명의 힘>, <더 텔레폰>, <아드리아나 르쿠브리르>, <루크레치아의 능욕> 등에서 주·조역 출연
- 전) 크리스티나 라키 인터내셔널 싱잉 마스터클래스 참가, 독일 브레멘 오페라극장 합창단 활동, 독일 함부르크 쟁어 아카데미 솔리스트 활동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도비닉 후작 Bass Marquis d'Obigny Bass | **나규보** Na Kyubo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이탈리아 모데나 국립극장 아카데미 졸업
- 레오 누치, 마리엘라 데비아, 바르바라 프리톨리, 미켈레 페르투시, 크리스메릿, 레오네라 마지에라 마스터 클래스 수료
- 이탈리아 소렌토 국제 콩쿠르 1위, 이탈리아 T.O.S.C.A 국제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등 다수 국제 콩쿠르 입상
- 이탈리아 매거진 'Opera Life' 선정 이달의 아티스트
- 에스토니아 원터 페스티벌 탈린 시청 초청 독창회, 노르웨이 라르비 초청연주, 이탈리아 안도라 초청연주
- 오페라 <마술피리>, <리골레토>, <세비아의 이발사>, <라 보엠>, <카르멘>, <로미오와 줄리엣>, <브루스키노씨>, 창작 오페라 <선비>, 우리말 오페라 <조선에서 온 리골레토>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그랑빌 의사 Bass Doctor Grenvil Bass | **김일동** Kim Ildong

-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도니체티 아카데미아 졸업
- 이탈리아 로마 아카데미아 지휘 졸업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일 트로바토레>, <아이다>, <운명의 힘>, <토스카>, <라 보엠> 등 다수 출연
- 현) 광신대 외래교수, 호남신학대 객원교수, 오페라 전문 가수로 활동 중



안니나 M.Sop. Annina M.Sop. | **황지혜** Hwang Jihye

- 삼육대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 이탈리아 베르가모 국립음악원 비엔노 과정 졸업
- 밀라노 도니체티 아카데미아 지휘 과정 졸업
- 오페라 <마술피리>, <춘향전> 주·조역 출연, 베르가모 소토 일 몬테에서 오케스트라와 협연, 베르가모 알메에서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협연, 베르가모 시 주관 도니체티의 밤 공연
- 현) 광주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주세페 Ten. Giuseppe Ten. | **이요한** Lee Yohan

-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카르멘> 등 다수 출연
- 현) 광주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



메신저 Bass Messenger Bass | **윤찬성** Yoon Chansung

- 조선대 음악교육학과 졸업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카르멘> 등 다수 출연
- 현) 광주시립합창단 수석단원

광주시립합창단 Gwangju City Choir

1976년 장신덕 교수의 시민합창단으로 태동, 창단 48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합창단이다. 그동안 한국 합창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맡아온 석복룡, 김연술, 김동현, 유병무, 구천, 임한귀, 김인재 등의 지휘자와 함께 190여 회가 넘는 정기 연주회를 비롯, 수많은 공연들에서 완성도 높은 연주회를 선보이며 광주시민들과 클래식 애호가들 그리고 한국 합창 음악계로부터 큰 인정을 받아온 광주시립합창단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제주, 전주 등 타 시도와의 문화교류에 앞장서 왔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연주회를 통해 합창단으로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광주광역시 대외 홍보와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하고 있다. 광주시립합창단은 현 상임지휘자 임창은과 함께 세계적인 합창단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수준 높은 레퍼토리 확보와 자연스러우면서도 블랜딩이 잘되는 발성 및 생동감 있는 합창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매 연주회마다 완성도 높은 공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언론계와 클래식 애호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지역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합창을 통한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찾아가는 공연을 수시 운영함으로써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광주시립합창단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상임지휘자 임창은 부지휘자 이 준 반주자 권 현 임리라

소프라노 수석 장미화 정혜진 장은지 | 차석 김지나 표현진 | 이명진 김은혜 윤은주 안소현 정혜원 정지희 | 비상임 최수현

알토 수석 김혜진 지영남 | 차석 박순영 오지영 | 박민희 한여옥 박애리 백미화 | 비상임 송지유 황지혜

테너 수석 정기주 유정석 | 차석 정광진 우성식 | 최재현 김철진 오승진 홍명식 정양훈 김원태 윤승중 | 비상임 이요한

베이스 수석 손승범 윤찬성 | 차석 김대성 김창식 | 홍태민 조정구 박광석 엄종호 이형기 이준용 | 비상임 이준희

사무국 운영실장 정상연 | 악보 최승아 | 기획·홍보 박승희 이정호



광주시립발레단 Gwangju City Ballet

광주시립발레단은 1976년도 창단된 프로발레단으로 국내 타시·도와 지속적인 교류 공연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 초청·교류 공연을 통해 완성도 높은 공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대한민국의 발레 부흥을 선도해온 시립발레단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 브랜드답게 공연 예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다양한 계층의 광주 시민이 즐겁게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매년 참신하고 왕성한 발레 콘텐츠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2022년 제7대 박경숙 예술감독을 맞이하며 '인간의 순수한 근원인 몸을 통해 전하는 종합예술의 극치'라는 가치와 함께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하는 발레단으로 자리매김코자 광주시립발레단만의 독창적이면서도 고유한 레퍼토리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을 통하여 지역 문화 기반의 동반 성장을 꾀하는 한편 광주시립발레단이 동시대적 경쟁력은 물론 세대를 뛰어넘는 예술적 가치를 겸비한 단체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술감독 박경숙 부예술감독 조가영 지도위원 박상철 반주자 주수경

수석단원 보그단 M. 플로피뉴 강은혜 우건희 임예섭 강민지

차석단원 신승현 공유민 하승수 김민영 박관우

상임단원 김선돈 노윤정 이승윤 강진구 신옥선 정아람 송관석 박경애 김희준 김주현 진성우 전진미 문병주

비상임단원 이기행 이희지 이상규 허대청 성하림 김도영 김민송 정하은 김소영 황유정 김희현 고재영 신인철 심재웅 강예슬 배수정 이고은

정유진 허요완 박범수 이용인 홍석형 김효은 석가영 이은택 박슬한 이신애 정다인 이영서

사무국 의상·소품 범정화 | 기획·홍보 서울이 강유빈 강지훈 | 음악 문하연



디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한국 유일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

해외 유학과 출신과 젊고 경험 많은 역량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한국 유일 오페라 전문 오케스트라입니다. 현재 대구오페라하우스 상주단체로서 대구오페라하우스의 기획공연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연주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단체와의 지속적인 음악활동과 유명 지휘자와의 만남으로 다져진 연주역량은 오케스트라로서의 음악적 '신뢰'와 '명성'을 쌓았으며, 앞으로 '오페라 대중화'를 추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공연담당 정은영 악보담당 이상원 홍보담당 정상미

Violin1 이지애 손호진 양수빈 류가현 이소희 이은영 홍재완 Violin2 장혜진 김예성 노선균 장지은 장유진 김재은 이지혜 Viola 김예송 조민지 박선영 조재형 김효원 Cello 설예은 박소희 최재영 박소현 김형기 Contrabass 김석민 김지정 서한나 Flute 이한나 백선미 Oboe 배민주 최규연 Clarinet 김민수 전다양 Bassoon 조혜연 조윤주 Horn 양삼영 김태우 송상호 최은지 Trumpet 전성화 이해연 Trombone 김진욱 이민정 이상빈 Tuba 민별근 Timpani 권혜진 Percussion 이희정 허동훈 Synthesizer 이용희



노이어앙상블 Neuer Ensemble Choir

독일어로 "Neu:새로운"을 의미하는 노이어앙상블은 새로운 음악, 무대, 사람을 서로 알아가며 무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오페라 전문 앙상블이다. 오페라 공연과 더불어 록콘서트와 갈라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에서 활동하며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소프라노 강유혜 김재나 박소정 이소연 남연우 테너 강동국 정은균



합창지휘 Chorus Master | 이준 Lee Jun

-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성악전공) 졸업
- 광주대 대학원 졸업(지휘전공)
- 전국지역신문협회 선정 한국문화예술대상 수상(17)
- KFCM 한국합창총연합회 주최 제2회 합창지휘 콩쿠르 대상 수상
- 광주예총 주관 광주예술문화상 공로상 수상(13)
- 전국 합창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 등 전국 합창경연대회 다수 대상 수상
- 현)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 광주남성합창단, 광주장로찬양단 지휘자, 광주동명교회 지휘자



부지휘 Assistant Conductor | 이현민 Lee Hyuenmin

- 전남대 음악학과 작곡전공 및 동대학원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관악오케스트라 지휘 석사 졸업
- 전남대 일반대학원 오케스트라 지휘전공 박사과정
- 바트라이엔할 필하모니, 블레저필하모니 모차르테움, 밀리테어무지크 잘츠부르크 지휘
-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정기오페라 <파우스트>,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어시스턴트 지휘, 상설공연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지휘('23,'24),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 합창지휘, 전남대 제4회 정기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부지휘
- 전) 전남대, 광주예고 강사
- 현) 광주예중 출강



안무 Choreography | 박경숙 Park Kyungsook

- 이화여대 무용과 졸업
-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 졸업
- 영국 왕립무용아카데미 발레 전문 지도자 디플로마
- 한양대학교 무용학 박사
- 국립극장장상('85, '93), 문예진흥원 중견문예인 해외 연수기금 수혜 선정('93), 제7회 한국발레협회 공로상('0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공로상('09), 대한무용학회 예술상('11), 사)한국발레협회 공로상('14), 전라남도지사상 안무상('16), 광주광역시 광산구민상 문화예술교육 부문('19) 수상
- 전)국립발레단수석무용수, 광주여자대학교교수, 한국무용교육학회이사및편집위원, 광주시립무용단단장, (사)한국무용협회 이사, 대한무용학회 이사, (사)한국발레협회 이사
- 현)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무대디자인 Stage | 최진규 Choi Jinkyu

- 중앙대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 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국립미술원(Accademia di Belle Arti di Brera) 무대미술과 졸업
- 오페라 페스티벌 작품 <5월의 마리아>로 데뷔('00), <라 트라비아타>, <라 보엠>, <파우스트>, 서울시 오페라단 <바스티엔과 바스티엔느>, <돈 조반니>, <사랑의 묘약>,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창작 오페라 <한울춤>, <미호연>,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20), 창작 오페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대구오페라하우스 <나비부인>('16), <박쥐>, 경남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유니버설 발레단 <춘향> 등 80여 편의 오페라와 발레의 무대와 영상을 작업



분장디자인 Hair & Make-up | 임유경 Yim Yookyung

- 서경대 미용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 오페라 <아이디>, <투란도트>,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토스카>, <라 보엠>, <리골레토>, <카르멘>, <춘향전>, <심청전>, <캣츠>, <오페라의 유령>, <그리스>, <레 미제라블>, <토지> 등 국내공연 1,000여 작품
-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꼬모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몬짜,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 일본 도쿄, 나고야, 중국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탐 등 해외공연 수십 회
- 전) 정화예술대 겸임교수, 추계예술대 출강
- 현) 전문분장팀 Face off 대표, 서경대학교 겸임교수, 인천대 출강



의상디자인 Costumes | 박선미 Park Sunmi

-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돈 조반니>, <토스카>, <나부코>, <춘희>, <나비부인>, <세빌리아의 이발사>,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등 천여 편 및 창작 오페라 <심산 김창숙>, <아! 징비록>, <순양원> 등 다수 작업
- 중국 5개 도시 <시집가는 날> 해외공연('13~'15)
- 대구오페라하우스 <세빌리아의 이발사> 의상감독('15),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라 보엠> 의상디자이너('19), 김해문화재단 창작 오페라 <허왕후> 의상제작 및 감독('21~'22)
- 현) 공연의상 전문 디자이너로 활동 중, 선미무대의상, 선미드레스 대표



조명디자인 Lighting | 김민재 Kim Minjae

- 단국대 석사수료
- 오페라 <사랑의 묘약>, <토스카>, <카르멘>, <나비부인>, <마술피리>, <라 보엠>, <헨젤과 그레텔> 등 및 창작 오페라 <박하사탕> 등 다수 작업, 뮤지컬 <삼총사>, <윤동주 달을 쏘다>, <친정엄마> 등 다수 작업
- 현) 다수의 오페라 공연 조명디자이너로 활동 중



영상감독 Video | 우기하 Woo Kiha

- 국립발레단 <마타하리>,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토스카> 영상감독
- 광진문화재단 <피그닉 in 나루>, 뮤지컬 <G-SHOW : THE LUNA>, 국립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 ACC 신비한극장>, 국립국악원 대표공연 <사직제례악>, 뮤지컬 <버지니아울프>, 대전예술의전당 스프링페스티벌 콘서트오페라 <라 보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공연 <신비한 극장>, 뮤지컬 <파파>
-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식('12~'23), 무주세계태권도대회 개막공연('17) 영상감독
- 현) 다수의 오페라 공연 영상디자이너로 활동 중



조연출 Assistant Director | 김채령 Kim Chloee

- 서울예고 졸업
- 서울대 성악과 학사 및 석사 졸업
- 독일 함부르크 요하네스 브람스 콘서바토리움 오페라과 수료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예술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수료
- 콘서트 오페라 <박하사탕>, 오페라 음악극 <라 트라비아타> 협력연출
- 오페라 <마술피리>, <라 트라비아타>, <헨젤과 그레텔> 연출
- 뮤지컬 갈라콘서트, 오페라 갈라 <피가로의 결혼> 연출
- 국립오페라단, 광주시립오페라단, 수원시립합창단, 창원시립예술단, 김해문화재단, 성동문화재단, 서울오페라앙상블, 화성시문화재단, 경남오페라단 등 다수의 국공립 및 사립 단체와 협업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최 철
연출	이경제
지휘	송안훈
부지휘	이현민
합창지휘	이 준
안무	박경숙
무대디자이너	최진규
조명팀	조명디자이너 김민재 조명오퍼 김용년 조명팔로우 김 룡 정성태 조명크루 금명정 조경빈
영상팀	영상감독 우기하 영상아트디렉터 한지원 영상그래머 이강석
분장팀	전문분장팀 Face off 분장디자이너 임유경 분장실장 임경식 분장팀장 이정민 임그린 장사랑 배지혜 김영천 백연주 노준영 조시연 양에서 김도연 한신영 안소희 전주경 이래경 김성영
의상팀	선미무대의상 대표 박선미 의상조감독 김현지
의상진행팀	진행감독 양지은 김나현 이지예 최지원
조연출	김채령
자막오퍼레이터	강보란
무대크루	구민우 소찬호 원현지 이 준 이동원 이지윤 전진룡 정종극
음향크루	김영현 김예동
무대제작소	이조디자이너
소품제작소	시인기획

광주예술의전당
Gwangju Arts Center

전당장	윤영문
관리운영과장	박지만
사무팀	팀장 고부석 장호석 김동영 김선빈 나소정 최승미 김홍량 홍승미
시설팀	팀장 정동훈 이강석 송태준 문광종 천 태 김 현 김청빈 김영준 이가연
공연지원과장	양승수
공연기획팀	팀장 이경석 이가영(담당) 김송미 박진희 주은혜
홍보마케팅팀	팀장 모성일 장윤정 류소의 김아연
통합사무국	강주희 이영미 조근휘
무대팀	팀장 정운창
대극장	무대 손현우 박정현 기계 국윤강 조계원 조명 박성준 김정호 음향 노보연 박 열
소극장	무대 김진환 강장선 조명 우이삭 이상현 음향 정운창 문원승

광주시립오페라단
Gwangju Metropolitan Opera

사무국	운영실장 백홍승 무대감독 김강준 기획홍보 강송운 음악담당 김혜련
------------	--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득주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팀장 김민정 정유호 박형기 박선영 한규리 박새별 강지윤 김명진
교육사업팀	팀장 이호진 김유리 박지윤 최서윤 백지연 최수민 최보윤
무대예술팀	팀장 이호섭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박준환 정진섭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이철훈 장성훈 오준호
17기 오페라필	강서은 곽현진 구다운 권승현 김경준 김소화 김유림 김지현 김채영 박소현 박지승 엄채윤 이동규 이서진 이수진 이승찬 이여진 이지현 이채원 임채희 전지민 조승아 최소은 최아은 최자현 추서연 황주연
9기 오페라팬	권혜미 김수정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이해원 이혜인 임수진 장성민 장조휘 정연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제21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

Daegu
Opera house
대구오페라하우스

OPERA
NATIONALĂ
BUCUREȘTI



21ST DAEGU INTERNATIONAL OPERA FESTIVAL

대구오페라하우스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국립오페라극장 합작

Puccini Opera Gala

폐막콘서트 : 푸치니 오페라 갈라

11. 8 Fri. 19:30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다니엘 막달 / 지휘 다니엘 정가
Ten. 다니엘 막달 / Bar. 알렉산드루 콘스탄틴 / Bar. 루시안 페트리안
Sop. 율리아 이자에브 / Sop. 마르타 산두 / Sop. 베로니카 아누카 / Sop. 안드레아 부쿠르

주최 대구광역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 주관 대구오페라하우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국립오페라극장
후원 대구신세계 | 협찬 파버카스텔, 커피명가

Stroke-lines 2403_100x73cm_2024
Nam Tchun-Mo

